



6



초등 문화예술교육



제목: 함께 성장하는 금마교육과정 속으로 똑!똑!

학교명	인천금마초등학교	영역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급 별	초등학교	학년/ 과목	1-6학년/전 과목(초등)
세부과제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작성자	교사 이인
주요 내용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여김 - 전교생이 1인 1악기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어 예술 감성 UP - 문화예술 체험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서 발달, 문화적 소양 향상		

1.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문을 열며

선생님들과 톡톡!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시작

본교는 부장교사들만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교직원협의회와 일원화시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전체교사들의 교직원협의회 시간의 이야기의 중심은 늘 학생들에게 있다. 학교생활이나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행복한 경험은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갈 능력 및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어린 시절 행복한 교육을 통하여 가고 싶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토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보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험 및 인성교육프로젝트를 편성하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가치를 같이 나누다

혼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함께라면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라서 책임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고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책무성을 밀바탕으로 한 진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해준다. 우리는 주제중심교육과정으로 재구성을 운영하며 같이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2.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실천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배움이 일어나는 프로젝트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추출, 내용선정, 평가계획까지 학년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주제중심 교육과정 편성은 인성 교육을 공통주제로 선정하였고, 프로젝트기반학습으로 개인 및 사회, 국가와 세계의 가치를 공감하며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주제중심 교육과정운영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인 주제 및 학년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 년	1학기				2학기			
	주제	시기	차 시	재구성교과	주제	시기	차 시	재구성교과
1	사랑하는 내 친구	3-5월	12	국어(2), 수학(1), 슬생(1), 즐생(2), 바생(3), 창체(3)	우리 이웃을 만나요	9-10월	15	국어(3), 바생(2), 슬생(4), 즐생(6)
2	꿈을 키우는 나	3-6월	19	국어(5), 즐생(6), 바생(3), 슬생(4), 창체(진로)(1)	소통하고 배려하며	9-11월	17	국어(9), 슬생(2), 즐생(4), 바생(2)
3	배려와 존중	6월	23	국어(8), 도덕(2), 체육(4), 창체(2), 미술(4), 과학(3)	시간 여행	10월	12	국어(4), 사회(3), 체육(1), 음악(1), 미술(2), 창체(1)
4	타임머신 타고	4월	5	사회(2), 체육(1), 미술(2)	대화예절	8-9월	9	국어(6), 도덕(3)
5	민주시민교육	4-6월	15	국어(7), 도덕(8)	소중한 나, 사랑스런 너, 함께 하는 우리	9-10월	12	국어(4), 도덕(3), 실과(3), 창체(2)
6	소중한 우리 문화	4-5월	26	국어(11), 사회(5), 도덕(1), 과학(2), 음악(5), 미술(2),	세계 문화	9-11월	15	국어(8), 사회(3), 음악(2), 미술(2)

<표1> 학년별 주제중심 교육과정운영 사례

가르침과 배움, 배움과 가르침이 통합적으로 어울리는 수업 활동 전개

가르침과 배움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여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통합된 주제나 여러 교과와 관련된 체험, 경험 중심의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1~6학년의 즐겁고 특별한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생각이 커가고 있다.

학년	2학년	제정수	74명
임시 및 장소	2018년 6월 20일(수)	지도교사	담임교사 외 교사 2명
적용교과 및 교육과정	창체(자유활동) 1시간 윤거문생활 「여름」 1시간	시간	6월 20일(수) 1~2교시: 2-1 6월 22일(금) 1~2교시: 2-2 6월 22일(금) 3~4교시: 2-3
활동 주제	「여름에 하는 일」 여름채소로 오이김치 만들기 -재료: 오이, 고춧가루, 무주, 마, 마늘, 액젓, 설탕, 소금 등 -도구: 칼, 도마, 믹싱볼, 1회용 장갑, 개인용 김치통기		
준비물	K오이김치 만들기		
활동내용	1. 여름채소의 종류 알아보기 2. 여름에 먹는 김치 종류 알아보기 3. 오이김치의 특징 살펴보기 4. 오이김치 만들기 실습하기 5. 친구와 함께 먹어보고 이야기 나누기 6.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음식을 먹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예산내역	창작	산출내역	내역
	창작비용 학교운영	창작비용 학교운영	프로그래밍 운영비
			230,000원×3학교 690,000원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계획



예술 감성 UP! 문화예술교육

우쿨렐레(1학년), 바이올린(2·3학년), 합창(4학년), 단소(5학년), 오카리나(6학년) 교육으로 학생들은 악기 및 합창 교육에 참여하였다.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1학생 1악기 익히기로 1학년은 우쿨렐레, 2-3학년은 바이올린 선생님을 초빙하여 매주 2회씩 각 반당 총 18회씩 교육하였다. 이는 학교 밖의 사교육인 우쿨렐레와 바이올린을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교 안 교육으로 흡수하여 예술적 감수성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4학년은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 소속의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합창지도를 20시간 받으며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길러 감성교육을 실천하였다. 5학년은 단소, 6학년은 오카리나를 수업시간에 배워 학생들의 감성을 채울 뿐만 아니라 특히 6학년은 졸업생 공연으로 오카리나 연주를 하여 행복한 초등학교생활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원어민 초청 중국 문화 및 중국어 기초 교육 및 인천영어마을 위탁 교육

5,6학년은 4월부터 중국문화 이해 및 중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원어민 중국어 선생님을 초빙하여 매주 2회씩 각 반당 총 16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중국어의 기초를 습득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언어의 기초를 배우며, 중국어의 생활화를 통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4학년은 인천영어마을로 4박 5일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과 문화 활동을 경험하여 그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영어를 습득하여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영어 능력 키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주제별 활동 사례(문화·예술·체험)

본교의 문화예술 체험학습은 직접 예술 행사를 찾아가서 체험하거나 예술 단체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예술 행사를 온 몸으로 체험하거나 관람함으로써 예술적 심미안을 넓히고 올바른 관람 예절을 익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교실과 교실 밖이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닌 곳으로 배움이 교실 밖으로 자연스럽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시 유의사항

교육과정 재구성에 맞춰 배움중심 수업모형을 적용하고 제작·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등 좋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4.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여깁니다.

학생들과 교사 모두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로 오게 되었다. 그저 떠들기만 하던 학생들이 서로 머리 맞대고 협동하며 공부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때, 교사의 기쁨과 보람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전교생이 1인 1악기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어 예술 감성 UP

1학생 1악기 연주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와 더불어 음악을 통해 길러지는 고운 심성과 창의성을 갖고 문화 예술적 재능 계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예술 체험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서 발달, 문화적 소양 향상

감성지수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성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감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5.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의 문은 계속 열려있다.

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며 미래를 살아갈 주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중심, 배움중심 수업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에게 맞는 우리 학교와 학년에 맞는 주제중심교육과정으로의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제: 행복한 삶을 위한 창영문화예술교육

학교명	인천창영초등학교	영역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급별	초등학교	학년/과목	1-6학년/교과+창체
세부과제	심미적 감성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작성자	교사 엄지현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과정 속의 문화예술교육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행복한 삶을 위한 창영문화예술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며

●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 조사에 의하면 10대 학생들의 약 90%는 학교 밖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미비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교육은 창조와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꼭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다.

모름지기 교육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편안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학생들 저마다의 상상의 나라를 맘껏 펼치며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일도,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창영의 예술문화교육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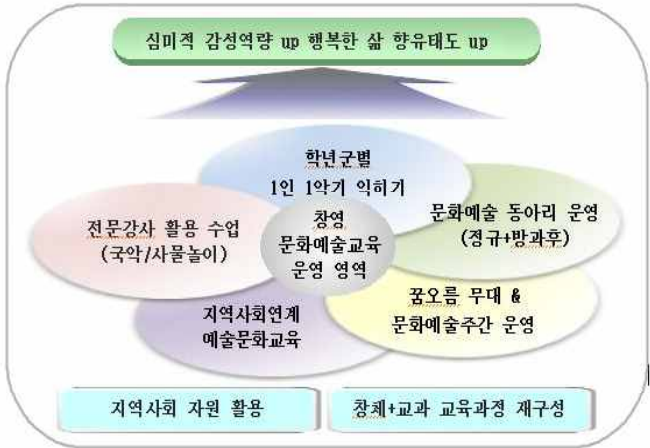
창영은 문화적, 교육적 혜택이 적은 문화취약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문화교육은 대부분 학교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술문화교육의 영역과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예술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학부모, 지역사회, 외부 전문 강사 등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며 풍성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II

: 행복한 삶씨앗을 심는 창영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만들기

● 문화예술 교육과정 영역과 교육과정 재구성

예술진흥원, 동구청, 교육지원청의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예술 강사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체 및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본교 교사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방과후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예술동아리를 자율적으로 개설하고 활동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역	관련교과	지도 내용	지도시기/시간	비 고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 교육과정	지원기관
1인 1악기	음악+창체 (동아리/자율)	*1-2학년군: 오카리나 *3-4학년군: 리코더 *5-6학년군: 소금, 장구	연중	○	○	학교자체 + 예술강사
예술문화 동아리	창체(동아리)	* 난타, 바이올린, 방송댄스, 연극부, 드럼, 독서큐레이터, 풍선아트 등 7개 부서 운영	연 32시간	○		본교 교사 + 예술강사
		*영상제작부<Arte>, 드럼부<Dynamic>	방과후 연 30시간		○	자율동아리
		*연극부 연극캠프 -10월 중 연극대회와 연계	7.24~7.31. 17시간		○	학교자체
		*치어리딩부	연중, 매주 토, 주 2시간		○	자율동아리
전문강사 활용수업	음악	*3-6학년 국악수업 실시	학년당 18차시	○		예술진흥원 강사지원
	미술	*1-6학년 도자기 수업 실시	각 학년 2차시	○		학교자체 +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지원
	창체, 실과	*1-6학년 원예 수업 실시	각 학년 2차시			
	음악, 창체	*1-6학년 사물놀이 수업	1-3학년 4차시 4-6학년 5차시			
지역사회 연계 예술문화교육	창체, 실과, 미술	*2-3학년 점선면 *4학년 만화그리기 *5-6학년 ucc만들기	4월~11월 학급당 6시간~10시간	○		인천동구청 강사지원
꿈오름 무대		*학생자치활동운영으로 노래, 춤, 연극, 뮤지컬 등 공연	월 1회 목, 중간놀이시간 (20분)		○	학생자치
문화예술주간	음악, 미술, 창체	* 학급결과물 전시회 * 학예발표회 * 체험부스 운영	10.29.~11.2	○	○	학부모, 마을연계

III

: 행복한 삶씨앗을 키우는 창영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 학년군별 1인 1악기 익히기

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 발달정도, 학교 여건, 활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학년군당 1-2가지의 악기를 선정한 뒤, 전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년군별 최종 악기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2학년군은 2017학년도에 이어 오카리나를 익히기로 하였으며 이때 학부모 오카리나 동아리의 교육기부를 받아 학생 교육과 연계할 방침이다. 3-4학년은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리코더를 충실하게 익히고, 5-6학년은 전문 국악강사를 활용하여 소금과 장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익히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선정된 악기에 따라 학년별로 10개 이상의 필수 연주곡을 선정하여 교육과정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아침자습시간, 동아리시간, 음악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지도하였다. 악기 연주는 단체별, 개인별 연습과정을 거쳐 꿈오름 무대, 학예발표회와 연계하여 발표회를 갖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 운영하였다.



오카리나 연주



리코더 연주



소금 연주



장구 연주

2 문화예술 동아리(정규+방과후) 운영

3-6학년을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 14개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중 난타, 바이올린, 방송댄스, 연극, 드럼, 독서큐레이터, 풍선아트 등의 7개부서는 문화예술동아리로 구성하였으며, 교사 및 외부 예술 전문 강사의 지원을 받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간 총 32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과후에는 학생 희망을 받아 영상제작부, 드럼부를 자율예술동아리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제작부는 관련영상제작대회에서 우수한 이력을 쌓아가는 중이며 드럼부는 학년말 드럼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한편 매주 토요일에는 치어리딩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치어리딩 유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연극부의 경우 2018 연극대회와 연계하여 방학 동안에 활동 집중 심화하여 연극캠프를 운영하였으며 10월 학교 대표로 연극 공연에 참가하여 예술 꽃을 피울 예정이다.



영상제작부



방송댄스 부



연극부



치어리딩부

3 전문강사 활용 수업 (원예/도자기/국악/사물놀이)

남부교육지원청의 예산지원과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문화 예술영역의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 중 4월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식목일 계기교육에 맞춰 식물 및 칼라 테라피 겸 원예수업을 실시하고 교실 속 1인 1화분 가꾸기로 연계하여 예술 감수성을 신장시키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인근에 위치한 도예공방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다육식물을 심어 환경교육으로 연계하였다. 또한 학교 예술 강사(국악분야)를 활용하여 담임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3-6학년의 국악단원의 교육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으며 사물놀이수업은 2인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꿈오름무대, 학예발표회와 연계하여 하나의 완성된 사물놀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예수업



도자기 수업



국악 수업



사물놀이 수업

4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동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본교 예산을 활용하여 학년 발달단계와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3학년의 경우 ‘점·선·면으로 짓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 아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평면, 입체로 표현하기, 4학년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만화 제작하기, 5-6학년의 경우 주변 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ucc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점선면



만화그리기



ucc제작



방송제작

5 꿈오름 무대 & 문화예술주간 운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중간놀이 시간이면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꿈오름 무대가 열린다. 학생 자치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꿈오름 무대는 출연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사전에 출연신청을 통해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으며 노래, 춤,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영역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이루어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한편 10월 마지막 주 주간은 예술문화주간으로서 학부모, 지역사회(마을)연계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정규교육과정, 방과후 교육과정의 학습결과물 전시

회, 1년 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 산출물을 발표하는 학예발표회가 학급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주간에는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 학년 연극관람도 예정되어 있어 국어과와 연계하여 연극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꿈오름 무대



꿈오름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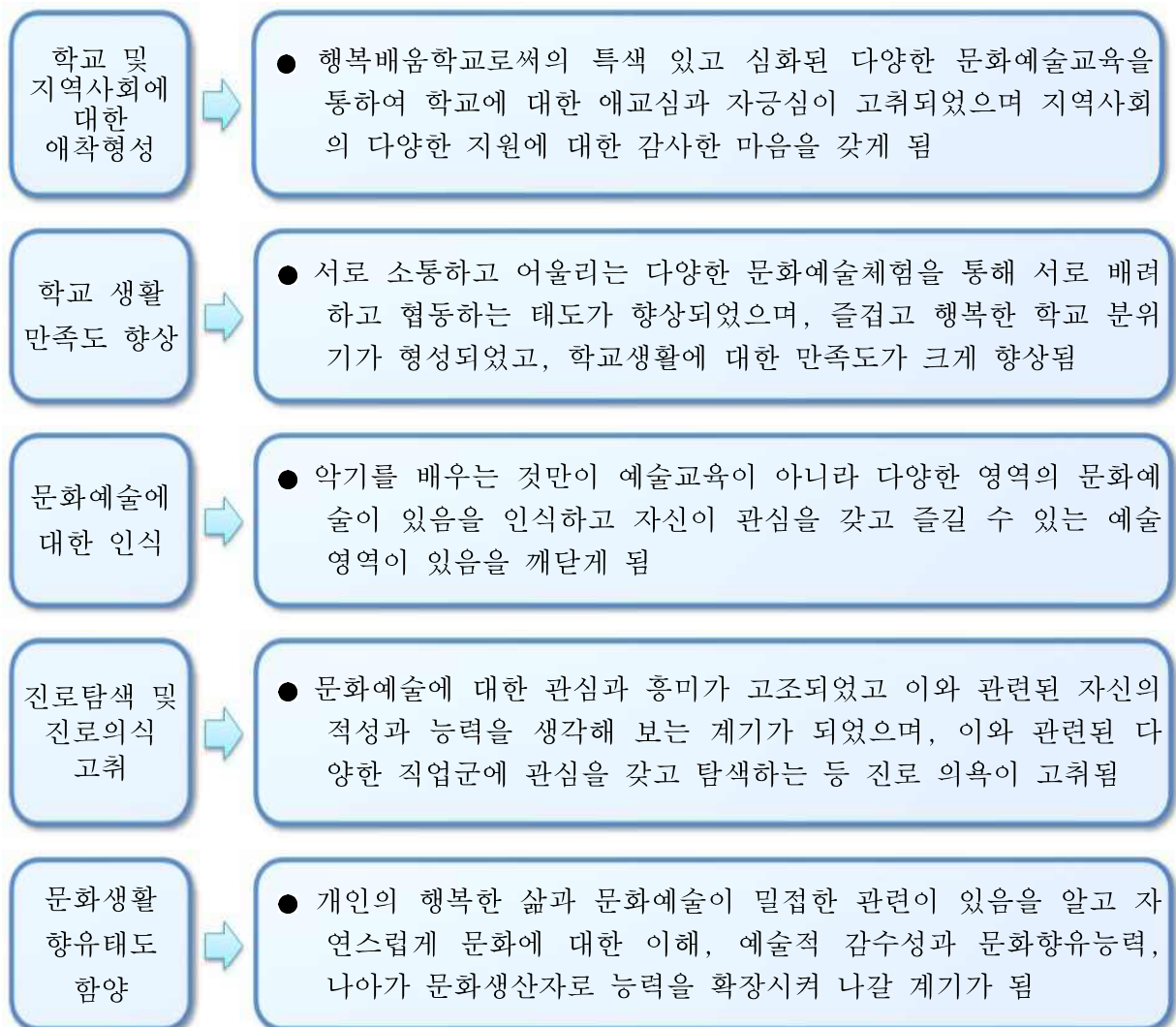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연계 체험부스



학예발표회

창영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삶씨앗은 이렇게 자랐어요



V

: 행복한 삶을 위한 창영문화예술교육 이야기를 마치며

● 문화예술교육은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투자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심미적 감성역량을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투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주제: 국악을 통해 이어지고 역임을 경험하다

학교명	인천은봉초등학교	영역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급 별	초등학교	학년/ 과목	2~6학년/음악, 창체
세부과제	국악을 통한 행복 배움 실천	작성자	교사 임은주
주요 내용	- 국악을 통한 행복 배움 실천 - 가야금이나 풍물 악기 등 국악을 배우면서 이어져왔고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 - 국악관현악단 <사잇소리> 활동을 통해 함께 연주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만끽하며 역임을 경험한다.		

1. 국악을 통한 행복배움 실천

왜 음악인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은 들어봤어도 음악을 좋아하냐는 질문은 낯설게 느껴진다. 한편,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음악을 좋아하지만 굳이 찾아 듣지 않는다는 대답을 종종 했는데, 이 글을 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무슨 말인가 참 이상하다 싶다. 하지만 이런 대답을 듣고도 상대방은 늘 끄덕였다.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질문은 우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어떤 음악을 싫어할 수도 있고, 음악은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있어도 음악이 싫다는 말은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 다른 무엇도 그렇지만 - 음악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가르친다.

이게 잘 통하면 음악은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른이 되어서도 악기를 꾸준히 배운다거나 힘들고 지칠 때 크나큰 위로를 받으며 음악에서 힘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국악인가

그렇다면 음악을 통한 행복한 배움은 어떻게 가능할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하는 즐거움, 그것도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배움이 그 무엇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함께 하기 쉽고 배우는 즐거움이 큰 장르로는 국악만한 것이 없다. 강강술래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춰 본 경험을 떠올려보면 많이들 끄덕일 것이다. 심지어 한번쯤 실수하고 틀리더라도 ‘묻어가기’ 쉽다. 풍물 등 국악 연주에서도 이 점은 유효한데, 실제로 국악을 가르칠 때 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틀리는 긴장도 풀어주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 실

력이 향상되면 이번엔 나를 믿어보라며 함께 연주하는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진다. 게다가 배우다보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서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

2. 이어져왔고 이어져있음을 느끼다

전교생 가야금 수업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수성 신장을 위하여 2학년부터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 8시간 가야금 수업을 받고 있다. 가야금이 가지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스러운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연주해봄으로써 우리 전통 음악과 문화를 접한다. 이후 학년별 진로체험 행사 중 국악기 체험 때 국악을 가깝고 재미나게 기억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어린이 돕기 나눔 장터 운영 등 교내 문화 체험 활동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국악 연주나 국악기 소개 등을 떠올리며 국악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감을 느꼈다.



3학년 학생들의 가야금 수업 모습



2학년 학생들이 진지하게 가야금 수업을 받고 있다

2018 여름 특강 <은봉 풍물 한마당>

여름방학 때 ‘신바람 흥바람 은봉 풍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교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있는데 주로 단원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단원 이외의 학생들에게도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특히 풍물놀이를 통한 국악교육의 활성화로 문화예술 감수성과 자기 안의 흥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게 하였다. 장구, 팽과리, 북, 징 등 풍물악기로, 같은 장단(리듬)을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어우러지게 연주해봄으로써 서로를 느끼며 맞춰가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였다. 또한 민요나 판소리를 한 대목 배우기도 하고, 교내에서 전통놀이 연수를 받은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일일교사가 되어 일상 속 전통놀이 시간도 가졌다.

일 정		시간	활 동 내 용	운영장소	비 고
7월 26일 (목)	09:10 - 09:30	20분	등록 및 알림 풍물 선생님들 공연 (다스림)	사잇소리실	이름표, 자료집
	09:30 - 11:00	160분	반별 활동 - 풍물 장단 배우기①② - 판소리 및 민요 배우기 - 전통놀이하기	어학실 사잇소리실 비타민무대	팽과리, 장구, 풍물북, 징, 소리북
	11:20 - 12:50				
	11:00 - 11:20	20분	간식시간	사잇소리실	간식 제공

7월 27일 (금)	09:10 - 09:30	20분	등록 및 알림 여는 활동(우리 문화 OX퀴즈 등)	사잇소리실	책상, 이름표, 자료집
	09:30 - 11:00	80분	반별 활동 - 풍물 장단 배우기③ - 반별 복습 및 수료식	어학실 사잇소리실	괭과리, 장구, 징, 풍물북
	11:00 - 11:20	20분	간식시간	사잇소리실	간식 제공
	11:20 - 12:50	80분	전통놀이 다함께 강강술래 배우기 및 발표회 선생님과 배운 장단 치며 풍물놀이 판소리 및 민요 발표회	야외무대 강 당	방송시설 부모님 참관 가능

<표> 은봉 풍물 한마당 세부 일정



입장단을 외치며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모습



배운 장단을 함께 맞춰보며 익히고 있다

이어져왔고 이어져있음을 느끼다

수업 시간에만 접해보던 국악기와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던 국악교육이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배우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하는 즐거움도 커져 갔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음악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사이를 채워, 같은 경험을 나누며 이어져있음을 새삼 느끼게도 해주었다.

3. 역할을 경험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 국악관현악단 사잇소리

2014년 창단한 본교 국악관현악단인 <사잇소리>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및 소금, 피리,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부터 신청 가능한 예비단원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거친 후 정단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매주 1회 80분 간 악기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 2회 80분 간 모든 악기가 모여 합주 수업을 받는다. 운영비는 교육부 및 교육청, 남동구청의 지원 예산과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본교 국악관현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교내외 다양한 무대에 서며 사잇소리 단원으로서의 뿌듯함과 우리 전통 음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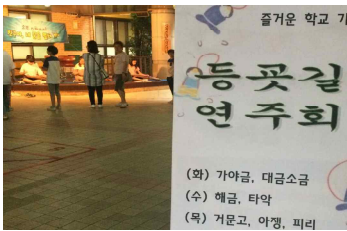
월	세 부 내 용
3	- 강사채용 및 세부 지도 계획 확정 - 신규 단원 모집, 파트 배정 - 악기의 기본 기능 익히기 - 입학식 축하 연주 - 사잇소리 총회
4~5	- 파트별 악기 연습 및 합주 수업 - 사잇소리 홍보를 위한 교실로 찾아가는 연주 - 첫 번째 다모임
6~7	- 파트별 악기 연습 및 합주 수업 - 아침 등굣길 연주회(악기별 연주회) 등 작은 공연 - 여름 특강 <은봉 풍물 한마당> 함께 하기
8	- 두 번째 다모임 2018 여름방학 집중 수업 - 전통음악한마당 및 동부 행복 나눔 사랑의 음악회 참가곡 연습
9	전통음악한마당 및 동부 행복 나눔 사랑의 음악회 참가곡 연습
10~11	- 점심시간 <은봉 슈퍼스타> 무대를 통한 예비단원들의 음악 발표회 - 전통음악한마당 및 동부 행복 나눔 사랑의 음악회 참여 - 정기 연주회 준비
12	- 세 번째 다모임 - 제5회 정기 연주회
‘19. 1~2	- 종업식 및 졸업식 참여 - 네 번째 다모임으로 한 해 마무리 및 내년 활동 계획 나누기

<표> 2018학년도 사잇소리 운영 계획 중 세부 연간 운영 내용

다모임과 자유 연습

이러한 수업뿐 아니라 단원들과 학부모가 다 같이 모이는 ‘다모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로서 사잇소리의 ‘지금’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사잇소리 및 사잇소리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생각을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공유하였고 다른 파트의 단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모임은 학부모들이 합주 수업도 참관하고 한 학기를 마치며 돌아가며 하고 싶은 말을 나누었다.

한편, 몇몇 국악기는 구입하기 쉽지 않고 악기별 수업 말고도 악기를 연습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5분부터 50분까지 사잇소리실을 개방하여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자유로이 몇몇 단원들끼리 합주를 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사잇소리실에서의 자유 연습도 가능하다. 이렇듯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고 국악기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시간과 공간을 개방하니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악을 받아들이고 활동에 참여하는 듯하다.

 사잇소리 3월 첫 만남의 시간	 사잇소리 다모임: 약 10명 단원 소개 중	 사잇소리 합주 수업
 등포길 연주회 모습	 등포길 연주회 모습	 금요일 아침마다 사잇소리실 개방 자유 연습
 사잇소리실에서 삼삼오오 자유롭게 연습하는 모습	 행복교육 국악공연 관람도 다녀왔어요	

역임의 즐거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느니 공동체의식이라느니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 모두 우리가 겪어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리라 싶다. 하지만 어떤 말이든 막연하고 각자의 경험이 달라 저마다 떠올리는 상황이나 그 깊이도 모두 다를 것이다. 그래서 설명이나 수업 안에서 만의 체험으로는 단편적으로 느껴지며 온전히 맛보기 어렵다.

지속적인 활동, 배운 부분을 함께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는 경험, 특히 음악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역임을 구체적이면서도 행복하게 마주하도록 한다. 실수해도 조금 어긋나도 괜찮다. 서로 봐준다. 그러다 소리가 맞는 순간 말 그대로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합주가 잘 되었을 때 함께 하는 즐거움은 배가 된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경험 이 넘치는 장이 되리라.

4. 마치며

사실, 학교 규모나 다양한 지원 면에서 봤을 때 국악 관현악단 운영에 들어가는 품이 크다.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예산의 90% 이상이 강사비를 충당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동료들도 있다. 업무 담당자로서도 고민되고 늘 점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

부 학생들의 악기 익히기에 머물지 않고, 음악 - 그것도 국악을 통한 몰입과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교육 경험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몰입해 보고 함께 맞추어 조화를 이루는 경험. 이는 뭔가 결정하여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자세를 가지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음악이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힘들 앞에서도 음악이라는 친구를 찾아 위로 받고 힘을 얻어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국악을 좋아한다. 국악은 듣는 것보다 하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취미 삼아 배우는 국악이 다양한 교육 활동과 맞닿으니 또 새롭고 날마다 배운다.

이러한 기회를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제공하는 교육공간이 행복배움학교이길 바란다.

주제: 함께 별별 것을 나누는 별을 찾는 교육과정

학교명	인천동수초등학교	영역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급 별	초등학교	학년/ 과목	5-6학년/초등
세부과제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작성자	교사 신혜영
주요 내용	- 문화예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동수 5, 6학년 교육과정 - 의미 있는, 삶과 가까운, 시민 양성을 위한 과정 마련 - 스스로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육과정 결과물로 보람찬 수업		

1. 한 발 한 발 걸어온 우리의 발자국

현재진행형, 한 발

의형제가 함께 추석맞이 송편을 만들어 먹던 날, 3학년 우리 반 아이들이 흥분한 얼굴로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형아들이 만든 영화 봤어요. ○○형도 나오구요, ○○누나가 주인공인가 봐요.”

반응을 보서는 거의 아카데미 수상자급 연기자들을 만난 것처럼 재잘거리는 귀여운 녀석들 모습에 나도 덩달아 자랑스러움과 대견한 마음이 교차했다. 아직 습작단계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5학년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니 작년까지 진행했던 5, 6학년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경험이 떠오른다.

다시 떠올리는 또 한 발

교실에 들어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의원이 의논했으면 한다면 다가온다.

“이거 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전체 특방에서 다모임 내용으로 의논했으면 하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들여다보니 학교 공사로 중간놀이와 점심시간에 여럿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평생 학습실에 대한 규칙을 의논했으면 한다는 내용과 몇 가지 규칙과 배려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

“그래?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어? 매번 그 시간이었지만 급하면 당겨서 오늘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선 다른 반 대의원한테도 제안해서 6학년 각반의 다모임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하면 다 같이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으니 기다렸다 우리 반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자 해두고 책상 위에 있는 배움공책을 하나씩 보며 교실에 이제 들어서는 아이들과 눈 맞춤, 말 맞춤을 한다. 그러다 눈이 머무는 공책 하나……, ‘드디어 하는구나.’ 매번 친구들의 것을 보고 쓰던 아이의 “ ‘불량한 자전거 여행’ 을 읽고 자전거 여행이 나도 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은 수학여행이 처음이었어도 잘 해낸 나다. 할 수 있다.” 하는 배움일기 몇 줄. 가슴이 뜨거워져 눈이 빨개진 채로 1블럭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두근거리는 첫 발자국

처음부터 이런 시작은 아니었다.

방과후 담당교사로 살았던 2년, 5학년을 가르치며 업무를 하느라 수업연구나 개별 상담은 꿈꿀 수 없었던 메마른 첫 해와 자유수강권 50원을 찾아서 온갖 서류를 뒤지며 하얗게 새우던 밤의 결과로 시작된 습관성 각막 손상으로 고생한 두 번째 해는 동수초등학교로의 이동, 인천에서 처음 지정된 행복배움학교에서의 생활을 선택하게 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혁신학교, 인천 행복배움학교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같지는 않겠지.” 라는 절실하면서도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교육과정 재구성’ 이라는 것이 우선 과제로 던져졌지만 초보 부장인 나는 “이런 게 그동안 주간학습 안내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신세계부터 먼저 맛보아야 했다. 이렇게 처음 맡은 5학년 부장, 몇 달 동안 “부장님.” 호칭이 내 옷이 아닌 듯 싶어 손사래를 치곤했다.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 딱 하나, 잘 해내고 싶다는 바람 밖에는 없었다.

떨리는 시작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배운 첫 연수였다.

이미지를 넣으면 좋다가에 한 선생님이 “우리 주제가 소통이니까……” 그러 넣은 소 그림의 마인드맵 한 장, 연수를 받으며 구성한 그 그림 하나를 붙잡고 시작한 1학기는 이런 건 처음인 4명의 담임들이 모여 “내가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 라며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2반 선생님은 환경을 주제로, 1반 선생님은 세계시민 교육으로, 나는 생명존중과 가족을 주제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교과를, 단원을 배치하며 초보 넷이 좌충우돌 교육과정을 짜고 “어떻게 되겠지…… 잘 될까?” 라는 두근거림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2. 함께 별별 것을 나누는 별을 찾는 교육과정

함께 한 발씩 떼어가되 서로 발맞추어 한걸음씩 차분하게

2015학년도 1학기에 좌충우돌하는 시간동안 담임교사가 나뉠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꾸려가며 아이들은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소통인증식, 환경페스티벌, 통일퍼포먼스, 세계문화박람회를 거치며 아이들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재구성한 2학기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 수업이 시작되기 전 2, 3학년 동생들과 부모님을 초대하여 사냥체험, 석기제작, 고인돌 재현 등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선사시대 박물관 큐레이터 과정’에서 능력을 펼쳤다. 동생들을 인솔하고 설명해주고 체험시키는 아이들의 모습은 함께 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감동적이다!”는 탄성을 이끌었다. 2학기에는 아이들의 자발성과 협력의 토대 위에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시간을 통해 감각적 만족을 더하고 지성, 감성, 인성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2015 5학년 2학기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기	9월 2~3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2월 1주
통합 주제	뿌리 깊은 나무				전쟁과 평화			
프로그램 주제	고조선 8조법	고구려 벽화	상감 청자	조선 신분제	삼국시대 유물	발해 동북공정	서희 소손녕	임진 왜란

모든 것이 시작이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이야기했다. “내가 기획하고 해내는 경험이 제일 소중한데요. 더 재미있고요.” 라고... 그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의 기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배움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기된 얼굴로 눈을 반짝이는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로 아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수초등학교는 이러한 2015년 1년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5, 6학년군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학년특색 및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⁵⁾ 대부분 새로운 교사들로 꾸려졌으나, 2015년 5학년 교사 1명이 2016년의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위해 중임으로 5학년에 남고, 나는 6학년 부장으로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연임으로 연속적인 교육과정을 이어나가려는 학년 배치가 되었다.⁶⁾ 이것은 5학년의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 재구성이 2016년에도 새로 구성된 교사들의 손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6학년 1학기의 또 다른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 재구성으로, 2학기에는 진로탐색 문화예술교육과정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술 강사와 반년간의 재구성과 협업의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갖게 된 우리 학교 5, 6학년 교사들은 다시 한 번 학교벽화와 설치미술 퍼포먼스, 뮤지컬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짜여진 프로그램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 실정,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것이기에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것이긴 했지만 우리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아이들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예술기획자로부터 들은 “당신도 예술가”라는 말이 떠올라 동료교사들과 이

5) 1, 2학년은 놀이중심 학년교육과정 운영, 3, 4학년은 생태교육중심 학년교육과정 운영으로 전 교사의 논의를 통해 학년 특색 및 학년군 연계 운영을 2015년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6) 2017년에는 5학년 부장과 6학년 부장의 중임, 5학년 교사 1명이 연임함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을 합의하였다. 교사 다모임을 통한 규정을 정하여 타 학년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연임, 중임을 이어갔다.

야기하며 “교사란 직업도 기획력이 필요한 예술가이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가 들으면 “교사들이 이벤트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반문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 아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 교사들의 열린 사고와 노력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성과를 이어갔다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에 서로를 격려했고 아이들의 눈에 띄는 성장에 배가 부른 듯 기뻐다.

요즘 어느 학교나 있을,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2015년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드러난 5학년 아이의 자살충동과 자해, 이것의 바탕이 된 가정사정은 담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관리자, 생활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시작이 되었다. 시교육청의 정서치료와 관련한 의료지원,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등의 상담프로그램 등을 각자 찾아내어 방학 중에도 아이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16년에도 이어서 학교 내부 지원, 외부 지원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었다. 2016년에 담임을 맡으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큰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가 느꼈던 감동은 교사로 사는 동안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기억이다. 지금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로 학교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나하나 공들여 벽돌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누가 짜주는 교육과정이 아닌 함께 결정하고 구성하여 실행해나가는 교육과정의 경험을, 어려운 생활지도의 문제 상황을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여 해결하고 채워주고 나누는 과정의 경험을 쌓아 갔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 되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학교에서 새삼스레 느꼈다. 함께 나누며 교사가 성장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험은 기운을 북돋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별별 것이 모인 우리의 삶을 교육과정 안으로

첫 해부터 우리 아이들의 입에는 “별걸 다하는 학교, 직장인보다 바쁜 학교” 라는 우스갯소리가 달려있었다. 하지만 척척 해내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중심 재구성으로 역사인물애니메이션축제를 만드느라 수십 장의 그림을 그린 아이들이다. 숨어있던 휴연예방 예산을 활용하여 담배터널을 통과하여 타르가 차있는 폐를 박으로 표현하고 더러워진 흰 티로 설치미술을 하는 신기한 과정은 아이들의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시작되었다. 하루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을 이상하게 허물어뜨린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쓴 편지를 묶어 책으로 만들자 한 것도 아이들이었다. 옷을 만들자 하니 정말 옷처럼 한지로 만들어 패션쇼를 하고 감정조절이 어려운 친구가 춤을 잘 춘다는 사실을 끌어낸 것도 우리 아이들이었다.



동수역사애니메이션 축제



흡연예방 설치미술 퍼포먼스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현장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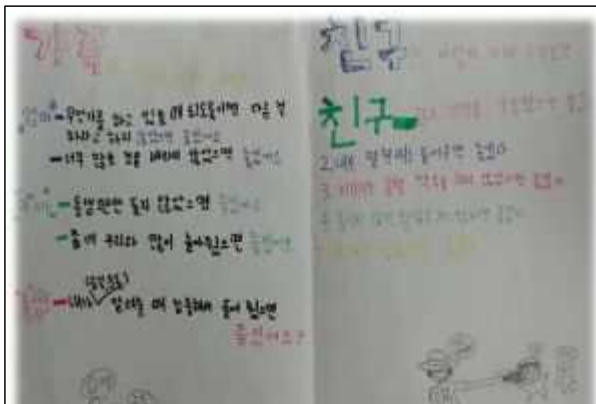
조상의 슬기를 재해석하는 우리문화 박람회

2016 6학년 1학기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순	주제명	관련교과	주요 활동
1주제	함께 하는 우리	국어, 사회, 도덕, 창체	- 자기소개 및 나의 꿈 인증식 - 학급긍정훈육법(PDC)를 통한 학급규칙 세우기 -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드라마테라피 활동
2주제	누울지언정 꺾이지 않으리	국어, 사회, 실과, 미술, 창체	-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적용한 홀로그램 만들기 - 역사 인물을 상대로 면담하고 기사쓰기 - 동수역사애니메이션 페스티벌(DHAF)
3주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창체	- 손바닥 헌법책 읽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분류 - 관점을 파악하며 뉴스 만들어 발표하기 - 역사 속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례 탐구 - 민주주의와 관련된 음악 감상하기 - 전문예술가와 함께 하는 흡연 예방 설치미술작업
4주제	평화, 깃들다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창체	- 평화, 인권과 관련한 그림책 살펴보기 - 위안부 할머니들께 편지 써서 수요 집회에 전달 - 교실 속 군사분계선 일일체험하기 - 비폭력대화법으로 자기 욕구 표현하기 -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음악 조사하고 감상하기 - 서대문형무소 및 대림미술관 체험학습
5주제	우리 문화 한마당	국어, 사회, 체육, 음악, 미술	- 개화기 문물 광고하기 - 서민문화와 근대문화 체험 박람회 - 전통 춤사위를 활용한 꾸미기 제조 - 한지를 이용한 패션쇼

2016 6학년 2학기 진로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순	주제명	관련교과	주요 활동
1주제	PDC로 만드는 따뜻한 교실	국어, 도덕, 창체	- 새로운 학급규칙을 제안하는 글쓰기 -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길 찾기 - 학급다모임, 6학년다모임, 고학년다모임 진행
2주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창체	- 나 사용 설명서 만들기 - 자아탐색을 위한 석고붕대 손 만들기 - 내면과 외면이 공존하는 가면 만들기 - 길 위의 인문학 체험활동
3주제	바라보다, 바로 보다	국어, 사회, 실과, 음악, 창체	- 세계 여행 계획서 만들고 신문기사 작성하기 - 멘토와의 만남, 부평풍물축제 참여하기 - 수학여행 지역 발전을 위한 창업 계획서 발표
4주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함께 벽을 넘는다	국어, 실과, 음악, 미술, 체육, 창체	- 뮤지컬 대본 구상하고 쓰기 - 무대의상, 소품, 무대 만들기 - 뮤지컬 안무 만들기 - 뮤지컬 노래를 파트 나누어 안무와 함께 부르기 -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뮤지컬 초대장 만들기



나 사용 설명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탐구하는 수학여행



꿈에 한걸음 더, 진로멘토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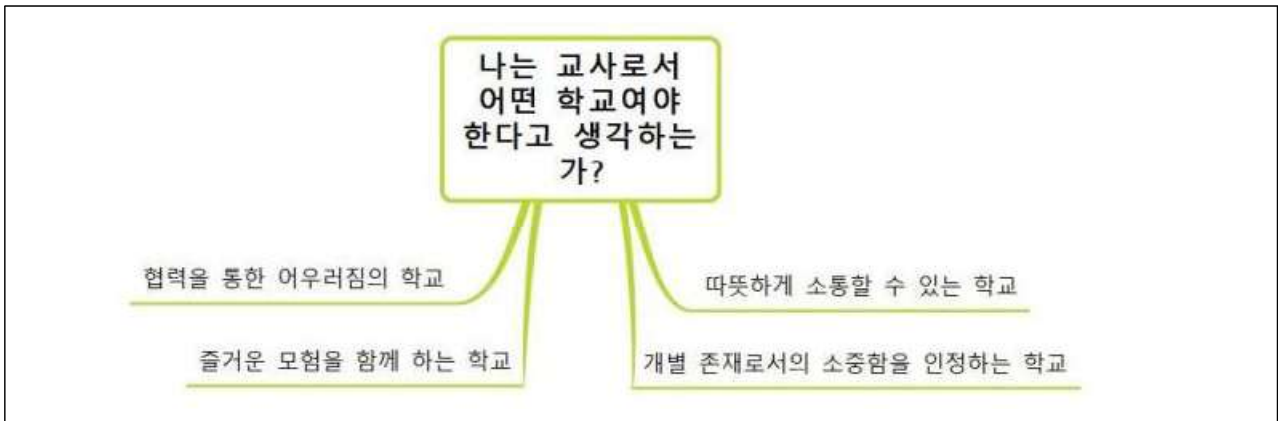


응답하라 2016 뮤지컬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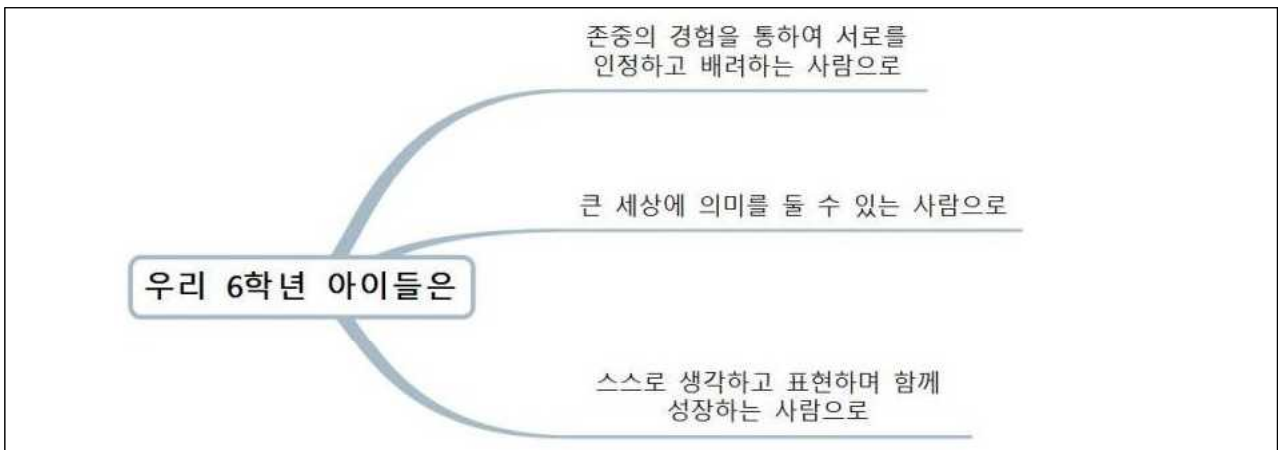
별길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별별** 것이라는 생각이 2015년부터 진행해온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기반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를 내가 가장 잘 알아야한다는 생각에서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나와 점차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부모님과 나누었다. 내 손에

기대와 꿈을 담았고 나의 내면과 외면을 들여다보았다. 나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대학생 멘토를 만나 언니, 형이라고 부르며 나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경험을 했다. 변화하는 환경이 전통과, 생태와 펠레야 펠 수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과 기차여행으로 간 서천에서 알았다. 그 모든 1년의 과정을 내가 노래를 부르고 연기하고 조명을 켜고 소품을 만들고 고른 음향을 틀며 뮤지컬로 만들어서 소극장에서 공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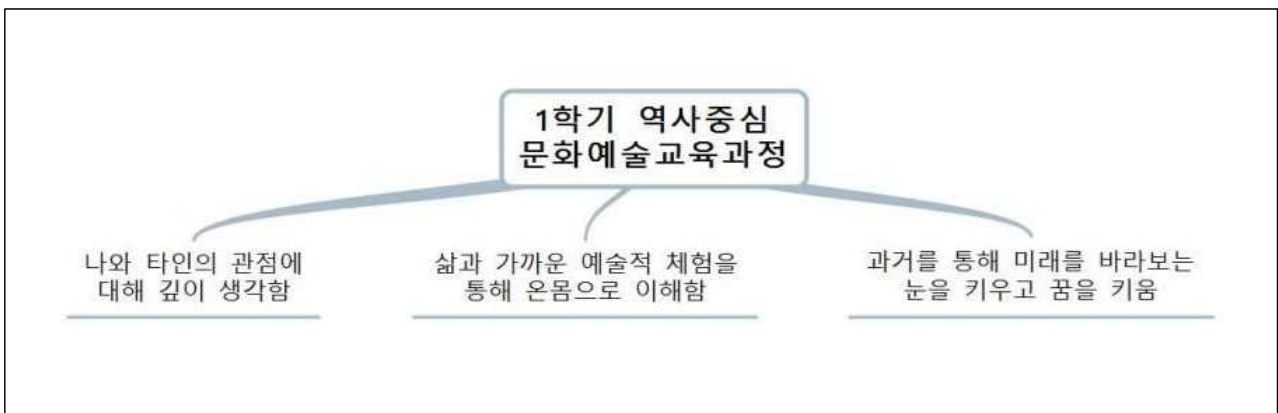
2017년은 새로운 교사, 학생 구성원 스스로 자기를 분석하고 6학년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와 진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숨 가쁘게 진행된 과정에 쉽표와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결과물에 마침표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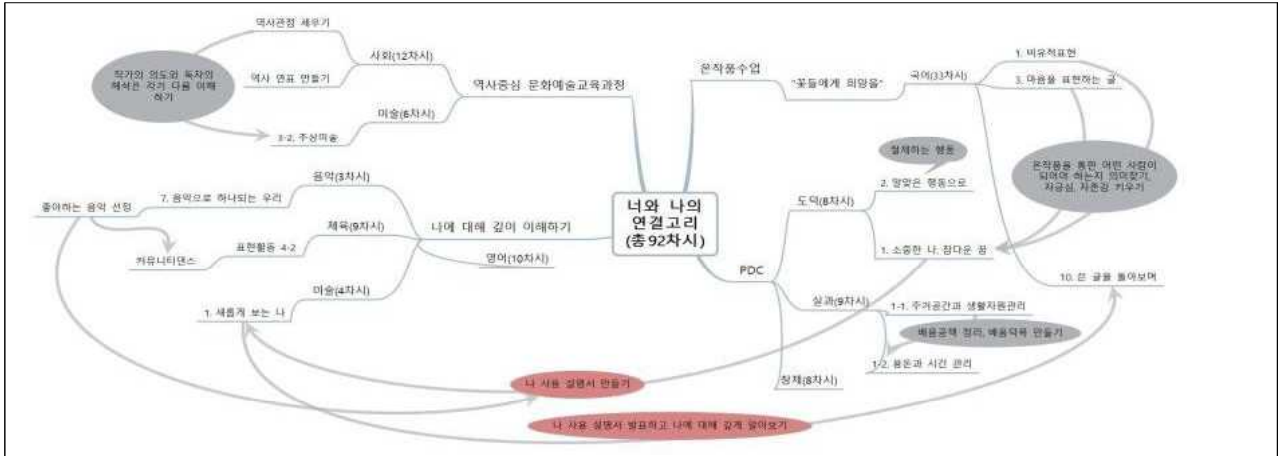
2017년 6학년 교사가 모은 학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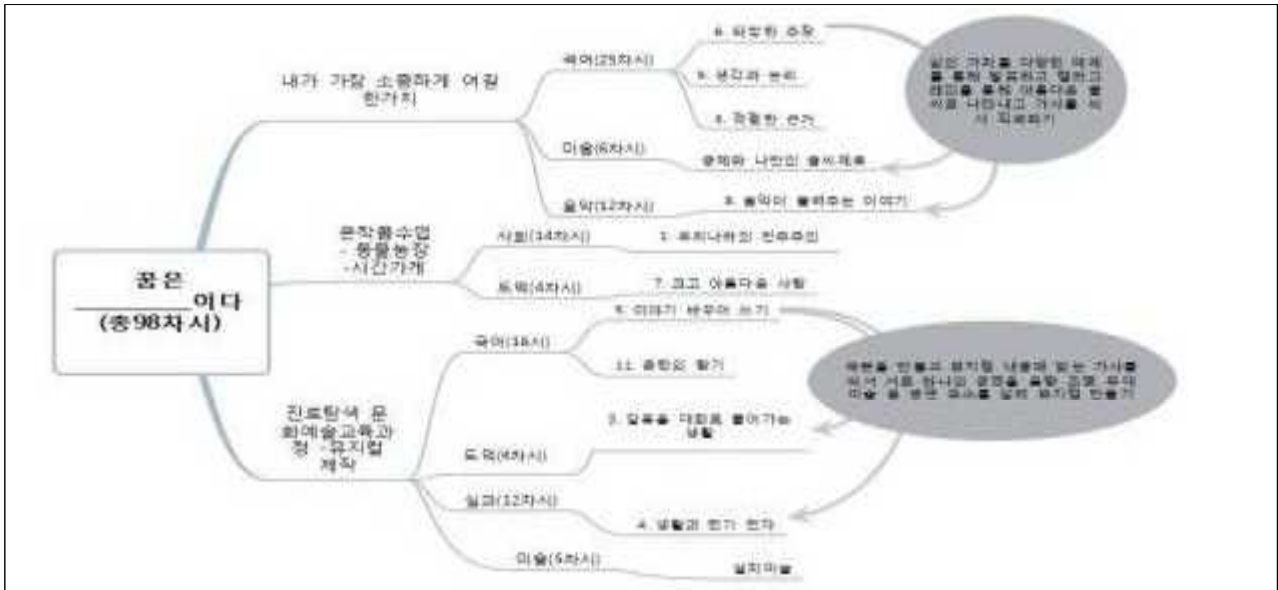
2017년 6학년 학생들의 자기 성장상



2017년 6학년 1학기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 주제도



2017년 6학년 2학기 진로탐색 문화예술교육과정 주제도 예시 1



2017년 6학년 2학기 진로탐색 문화예술교육과정 주제도 예시 2

3. 별 하나하나 소중한 학교를 향해 걷기

나의 작은 이야기가 소중한 별처럼 빛나는 학교

3년째 진행하며 누가 학년부장인지 헷갈릴 만큼 학년교육과정에 빠삭하고 책임지고 하나하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듯 연계되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1학기 다모임을 통해 들은 터라 2학기에는 더욱 신경을 쓰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옆 반 선생님의 말에 내 어깨는 한층 가벼워졌다. 1학기 마무리를 역사 희노애락 무용극으로 했던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과제가 닥쳐도 안 한다는 투정도 없고 언제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공부하며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함께 성장하는 학교생활은 모두를 반짝반짝 거리게 했다. 2학기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온 작품을 통한 깊은 사색으로 이루어낸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들고

뮤지컬곡을 직접 작곡하고 작사해낼 수 있었다.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모아 아이들의 이야기 ‘#(해시태그)2017’ 라는 뮤지컬로 만들어 무대 위에 성공적으로 올려내며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별이 되었다. 별처럼 빛나는 하나하나의 존재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나는 즐거움이 눈물이 고이도록 감동적이었다.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푼다고 별별 것 투성이인 삶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학교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술적 감성으로 사람을 사귀고 삶을 표현하고 배움을 구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별이 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2017년이였다.⁷⁾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품고 걷는 또 다른 걸음

올해 또 다른 행복 배움의 과제를 안고 3학년부장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앞장서 진행시켰다는 자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이 5, 6학년 학년부장님들과 학년 선생님들은 너무나 멋지게 또 다른 빛나는 이야기를 품고 2018년을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 있었던 행복배움학교 재지정과 관련한 전교직원 다모임자리에서 5, 6학년이 1~4학년 동안 경험한 행복배움학교와 문화예술이 품은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 선생님들의 입으로 들을 수 있었다. 어느 학교나 학폭이다, 사춘기다 하며 혀를 내두르며 기피하고 있을 학년이 우리는 달콤함의 결정체라는 사실은 너무나 즐거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올해도 ‘마침표’ 라는 뮤지컬을 공연장에 올린다고 한다.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끊임없이 해온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책상에서 세상을 배울 수 없듯 학교도 교육정책도 책상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소중한 존재를 품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도 교실에서 머물기보다 함께 가치를 품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동료로서의 서로의 별과 같은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과 교실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수업과 교실임을 인정하고 모든 체계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물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아 반짝거릴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 아이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자라나기 위한 별처럼 빛나는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어 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로서 교사로, 학생으로, 부모로 존재하고 별처럼 반짝이는 꿈을 품는, 별을 찾는 학교가 되길 바라본다.

7) 2017학년도 6학년 문화예술교육과정의 흐름

2017 6학년 1학기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순	주제명	관련교과	주요 활동
1주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국어, 사회, 실과, 도덕, 음악, 미술	- 배움공책을 기본으로 한 기초기본 학습 훈련 - ‘꽃들에게 희망을’ 온작품으로 자긍심 키우기 - 나 사용설명서를 통한 나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 역사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주제	느낌 있게 생각 뒤집기	국어, 사회, 실과, 도덕, 음악, 미술	- ‘명혜’ 온작품 수업과 뒷이야기 이어쓰기 - 관점을 살려 풍속화 등 조선 후기 문화 탐구하기 - 의상, 음악, 미술적 요소를 살려 내러티브 마임 발표하기 - 개항장 체험학습 후 가이드북(길잡이책) 만들기
3주제	내 나라, 내 나라!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창체	- ‘백범일지’ 온작품 수업으로 독립투사들의 삶 알기 - 상소문, 독립투사 역사일기 쓰기 -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우리 역사 이해하기 - 평화를 주제로 아름다운 한지 소품 만들기 - 교실 속 군사분계선 일일체험하기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체험학습
4주제	아픔 속의 피는 꽃, 민주주의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창체	- ‘연이동 원령전’ 온작품 수업과 민주주의 아픔의 장면 - 현재에서 과거를 찾는 배다리 헌책방 미션 나들이 - 학교 폭력 예방 ‘No-Bullying’ 어울림 프로그램 - 몸으로 알고 표현하는 역사 희노애락 무용극 공연

2017 6학년 2학기 진로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순	주제명	관련교과	주요 활동
1주제	삶은 _____다.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음악, 창체	- 진로탐색 문화예술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안하는 수학여행 - 부평 풍물축제 참여하기 - 삶의 가치를 나누는 학년, 학급 다모임 진행 -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한 삶의 다양한 가치 탐구 - 나의 가치를 담은 여행하고 싶은 나라 발표하기 - ‘불량한 자전거 여행, 너는 나의 달콤한 □□’ 온작품수업
2주제	꿈은 _____다.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음악, 실과, 창체	-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매체를 통해 발표하기 - ‘동물농장, 시간가게’ 온작품 수업 - 캘러그래피로 나만의 가치 액자 만들기 - 이야기를 담아 가사 만들어 곡 쓰기 - 극본, 음향, 조명, 무대 미술 등 공연 요소를 살려 관심분야에 참여한 합동 뮤지컬공연하기
3주제	이별은 _____다.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음악, 창체	- ‘청소년 백과사전’ 온작품 수업 - 나의 꿈에 맞닿은 진로 멘토와의 만남 - 자신의 꿈을 담은 애니메이션 만들기